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선택요인

정 현 상*

I. 머리말

지난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지 오래이나 2000년대 이전 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현재의 경제상태에서 고학력 청년층의 유희인력화를 해소하기 힘들어 보이기도 한다. 과거에 비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우리 사회는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를 극복하고자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편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에 청년층은 평생직장 혹은 안정된 직장, 연봉이 높은 직장 등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구직활동을 활발히 펼치게 되며 공무원 시험준비나 자격증 준비 등을 통해 미취업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의 노동공급 선택에 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변동성이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는 것¹⁾은 미취업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실업의 상태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바로 취업으로 탈출하는 비중 또한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 간의 이동이 활발하여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과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탈출하는 인구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업지표 집계기준인 구직 여부만으로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짓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이병희, 2001).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hsjung@kli.re.kr).

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주요국 청년층 실업률의 변동계수(CV)를 살펴본 결과 OECD 33개국 중 4번째로 낮았다.

국외에서는 일찍이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에 관하여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특히 청년층의 경제활동 유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청년층의 미취업기간과 미취업 탈출확률(취업확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안주엽·홍서연(2003)의 연구에서는 미취업기간이 길수록 탈출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탈출확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를 기준으로 전문대졸의 탈출확률은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의 탈출확률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기간 아르바이트 경험은 탈출확률을 높였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 실업률이 높을수록 탈출확률이 낮았으나 이후에는 평균 실업률이 높을수록 탈출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에 얽매이기보다는 가구의 소득 혹은 경력형성 등을 위해 일단 취업을 하고 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분석 의도는 청년층 미취업자의 실태와 원인에 관하여 분석한 김안국(2003)을 참고하였는데 청년기의 실업과 비경제활동 상태를 구분짓는 것에 대한 한계로 인해 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의 활동상태가 취업준비자(고시, 직업훈련, 학원통학 등)로 응답한 표본을 포함시켜 취업과 실업, 미취업 비경제활동을 선택하는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가구소득과 부모학력 등을 포함시켜 청년 개개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이나 가구특성이 경제활동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인적특성이나 가구특성 등 정량적 변수에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에 더해 개인의 심리적 상태, 자아존중감 같은 정성적 변수를 포함시켜 자아에 대한 자신감이나 개인의 성격 등이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II. 청년층 미취업 실태

청년층 미취업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2014년(8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2007년 당시 15~29세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정환경 등을 추적조사한 개인단위 패널조사이다. 1차 조사당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중이 높아 졸업 이후 미취업자에 대한 분석이 여의치 않았으나 2014년 8차 조사에서는 재학생과 비재학생의 비율이 1 대 4로 미취업자의 특성에 관해 보다 분석이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²⁾

이후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8차 조사에 응답한 7,055명의 개인 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을 제외한 5,687명이다. 이를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였고, 미취업자는 다시 실업자³⁾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주간의 활동상태에 따라 육아 혹은 가사와 쉬었음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구분한 경제활동상태별 인적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전체 표본의 약 4분의 1이 미취업상태 청년층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육아·가사의 비중이 가장 높는데 이는 여성과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30세 이상 표본이 전체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기혼자의 비중은 32.4%가량이며 취업자 중 미혼상태인 표본의 비중이 72.4%를

<표 1> 청년층 경제활동상태별 인적특성

(단위 : 명, %)

		전 체	취업자	미취업자		
				실업자	육아·가사	쉬었음
전 체		5,687(100.0)	4,290(75.4)	463(8.1)	621(10.9)	313(5.5)
성별	남자	2,474(43.5)	2,155(50.2)	197(42.5)	1(0.2)	121(38.7)
	여자	3,213(56.5)	2,135(49.8)	266(57.5)	620(99.8)	192(61.3)
학력	고졸 이하	1,265(22.2)	896(20.9)	64(13.8)	200(32.2)	105(33.5)
	전문대졸	1,671(29.4)	1,248(29.1)	129(27.9)	221(35.6)	73(23.3)
	대졸 이상	2,751(48.4)	2,146(50.0)	270(58.3)	200(32.2)	135(43.1)
결혼여부	기혼	1,843(32.4)	1,182(27.6)	23(5.0)	605(97.4)	33(10.5)
	미혼	3,844(67.6)	3,108(72.4)	440(95.0)	16(2.6)	280(89.5)
연령	20~24세	965(17.0)	717(16.7)	145(31.3)	11(1.8)	92(29.4)
	25~29세	1,828(32.1)	1,418(33.1)	210(45.4)	81(13.0)	119(38.0)
	30세 이상	2,894(50.9)	2,155(50.2)	108(23.3)	529(85.2)	102(32.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4), 『8차 청년패널조사』

- 2) 청년패널조사는 추적조사이기 때문에 8차 조사를 구성하는 표본의 연령이 36세까지 조사되었다. 최근 청년층의 취업연령이 높아지면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혹은 청년 니트족 등 청년층 유희화 인력에 대한 연구에서 청년층을 15~34세까지 확장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분석연령을 8차 청년패널조사에 있는 모든 표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 3) 앞서 설명하였듯이 청년층을 구직활동 여부로만 실업자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난 1주간의 활동상태에서 취업준비자(고시, 직업훈련, 학원통학 등)로 응답한 표본을 실업자에 포함시켰다. 이는 자료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간의 인적특성, 가구배경 등 주요 변수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의 활동상태에서 육아 혹은 가사로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면 70%가량의 표본이 '쉬었음'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외에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 등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쉬었음'으로 표기한다.

차지하고 있다. 실업자의 경우 남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상대적으로 고학력 집단일수록 실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유휴인력이 고학력화되고 있는 최근의 동향과 비슷한 측면을 보인다.

〈표 2〉 청년층 경제활동상태별 가구특성

(단위 : 명, %, 만 원)

		전 체	취업자	미취업자		
				실업자	육아·가사	쉬었음
전 체		5,687 (100.0)	4,290 (75.4)	463 (8.1)	621 (10.9)	313 (5.5)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1,150 (20.2)	862 (20.1)	52 (11.2)	189 (30.4)	47 (15.0)
	고졸	3,087 (54.3)	2,312 (53.9)	252 (54.4)	344 (55.4)	179 (57.2)
	전문대졸 이상	1,412 (24.8)	1,085 (25.3)	158 (34.1)	83 (13.4)	86 (27.5)
가구주	본인	1,210 (21.3)	1,142 (26.6)	28 (6.0)	19 (3.1)	21 (6.7)
	부모님	3,351 (58.9)	2,642 (61.6)	420 (90.7)	34 (5.5)	255 (81.5)
	배우자	1,024 (18.0)	424 (9.9)	12 (2.6)	559 (90.0)	29 (9.3)
	그외	102 (1.8)	82 (1.9)	3 (0.6)	9 (1.4)	8 (2.6)
생활비 부담	본인	1,190 (20.9)	1,147 (26.7)	21 (4.5)	3 (0.5)	19 (6.1)
	부모님	2,971 (52.2)	2,282 (53.2)	416 (89.8)	25 (4.0)	248 (79.2)
	배우자	906 (15.9)	280 (6.5)	15 (3.2)	581 (93.6)	30 (9.6)
	그외 ¹⁾	620 (10.9)	581 (13.5)	11 (2.4)	12 (1.9)	16 (5.1)
가구소득 ²⁾						
전체		2,805	2,477	3,819	3,767	3,771

주 : 1) 가구원들 간의 공동부담이 포함됨.

2) 취업자의 가구소득은 가구의 연간 총소득(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의 합)에서 개인의 연간 소득을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4), 「8차 청년패널조사」.

〈표 2〉에서 청년층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부모인 경우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실업자와 쉬었음에서는 5명 중 4명가량의 가구주가 부모였다. 가구주 여부와 유사하게 생활비 부담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실업자와 쉬었음의 대부분이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경제에 대한 의존성에 따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선택 유형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역의 관계도 존재한다. 즉 미취업상태이기 때문에 가구주가 부모이거나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부모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선택하는 주요 변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미취업자가 취업준비 혹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층 경제활동 유형별 가구소득을 비교하기 위해 취업자의 경우에만 가구의 소득에서 개인

의 소득을 제외한 타가구원 소득의 합으로 대체하여 미취업집단의 가구소득과 비교해 보았다. 취업자 가구소득이 미취업자에 비해 천만 원가량 낮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취업자가 미취업자, 특히 실업자와 쉬었음에 비해 부모와 분가하여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을 수 있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청년층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할 때 중요한 변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학력은 다른 선행연구에서처럼 경제활동상태 간에 눈에 띄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 입장에서 부모가 가구주이고 가구의 생활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우리 사회 대부분의 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층도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응답자가 청년층 본인이 부담한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청년층 켄거루족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서 켄거루족이란 성인이 된 이후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거나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층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오호영 외(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절반가량이 켄거루족이며 부모와 동거하면서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은 켄거루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거의존적인 특징을 보였다. 또한 과도한 부모의존성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여 개인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실업이나 쉬었음 같은 미취업자의 경우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기서는 오호영 외(2015)에서 제시한 켄거루족과 비켄거루족을 구분하는 방식을 차용하여 <표 3>과 같이 청년층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구분하였다. 부모에 대한 의존 성향은 A형, B형, C형 순으로 높다.

〈표 3〉 청년층 켄거루족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받음 ¹⁾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받지 않음
부모와 동거	A형	B형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	C형	X

주 : 경제적 지원에는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등의 생활비가 포함되며 학원비, 독서실, 고시원비 등 교육제반비는 제외.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에서 켄거루족의 비중이 비켄거루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육아 혹은 가사 유형을 제외한 미취업자에서 부모의존성이 가장 강한 유형 순으로 켄거루족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자에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으나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의존적 유형(B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계의 생활비 부담에 있어서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용돈 명목의 경제적 지원만 받지 않을 뿐 부모와의 동거 자체가 경제적 지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캐거루족과 비캐거루족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캐거루족의 가구소득이 비캐거루족의 그것보다 평균 1천만 원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업상태보다 미취업상태인 청년층의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 청년층 경제활동상태별 부모의존성

(단위 : 명, %, 만 원)

		전 체	취업자	미취업자		
				실업자	육아·가사	쉬었음
전 체		5,644 (100.0)	4,257 (75.4)	463 (8.2)	614 (10.9)	310 (5.5)
캐거루족 여부 ¹⁾	A형	425 (7.5)	32 (0.8)	247 (53.3)	9 (1.5)	137 (44.2)
	B형	2,792 (49.5)	2,483 (58.3)	161 (34.8)	31 (5.0)	117 (37.7)
	C형	279 (4.9)	241 (5.7)	24 (5.2)	2 (0.3)	12 (3.9)
	비캐거루	2,148 (38.1)	1,501 (35.3)	31 (6.7)	572 (93.2)	44 (14.2)
가구소득 ²⁾	캐거루족	3,261	3,085	4,417	3,837	3,921
	비캐거루족	2,093	1,390	3,783	2,790	3,076

주 : 1) A형, B형, C형 순으로 성인자녀의 부모의존성이 강함.

2) 취업자의 가구소득은 가구소득에서 취업자의 개인소득을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4), 『8차 청년패널조사』.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는 자격증 취득 같은 취업준비 노력과 노동시장 경험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중에서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비중은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는 김안국(2003) 등 미취업 결정요인에 관하여 알아본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청년층이 취업을 위해 민간 혹은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비중이 낮고 직업훈련 경험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과거 일자리 경험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육아 혹은 가사로 인해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경우 94%가량이 직장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일·가정양립이 어려워 대부분 결혼 이후 미취업상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후반과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 실정과 동일한 결과이다. 자격증의 평균 소지개수는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소지 여부

또한 취업자의 비중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높았다. 이는 자격증 소지 여부가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추후 경제활동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청년층 경제활동상태별 노동시장 특성과 취업준비

(단위 : 명, %, 개)

		전 체	취업자	미취업자		
				실업자	육아·가사	쉬었음
전 체		5,687(100.0)	4,290(75.4)	463(8.1)	621(10.9)	313(5.5)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없다	4,890(86.0)	3,689(86.0)	386(83.4)	545(87.8)	270(86.3)
	있다	797(14.0)	601(14.0)	77(16.6)	76(12.2)	43(13.7)
일자리 경험 여부	없다	2,532(44.5)	2,183(50.9)	211(45.6)	35(5.6)	103(32.9)
	있다	3,155(55.5)	2,107(49.1)	252(54.4)	586(94.4)	210(67.1)
시험준비 여부 ¹⁾	없다	3,957(69.6)	2,968(69.2)	271(58.5)	491(79.1)	227(72.5)
	있다	1,730(30.4)	1,322(30.8)	192(41.5)	130(20.9)	86(27.5)
자격증 소지 여부	없다	2,401(42.2)	1,758(41.0)	218(47.1)	264(42.5)	161(51.4)
	있다	3,286(57.8)	2,532(59.0)	245(52.9)	357(57.5)	152(48.6)
평균 자격증 수(개)		1.2	1.3	1.1	1.2	1.0

주 : 각종 고시, 공무원시험, 임용고시, 공사·공단시험 등(어학 혹은 민간자격시험은 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4), 「8차 청년패널조사」.

청년층 경제활동상태는 정량적 요인뿐 아니라 정성적 변인, 즉 청년기 심리상태나 자아존중감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자아에 대한 개인의 총체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로 정의된다. 즉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좁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을 완화시키거나 개인의 적응이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검증되었다. Salmela-Alo & Nurmi(2007)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거나 취업을 앞둔 시기에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하며 취업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감시키는 요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에 대한 감정과 스트레스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이 청년기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패널조사에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에게 자아존중감(자존감)과 관련된 13개 항목

〈표 6〉 청년층 경제활동상태별 자아존중감

	취업자	미취업자		
		실업자	육아·가사	쉬었음
1.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4.93	4.40	5.00	4.53
2. 가끔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	5.14	4.68	5.18	4.79
3. 나는 직장을 구하는데(또는 이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3.98	3.80	3.65	3.66
4.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4.20	3.97	4.03	3.87
5. 나는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4.23	4.05	4.11	3.99
6.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4.34	4.26	4.30	4.19
7. 나에게 업무가 주어지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4.32	4.20	4.14	4.07
8.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다	4.28	4.11	4.08	3.94
9. 나는 매사에 자신감 있게 임한다	4.22	3.95	3.98	3.89
10. 나는 지금의 내 자신이 싫다	5.01	4.59	5.00	4.66
11.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5.14	4.83	5.10	4.76
12. 나는 내가 처리한 일 가운데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4.09	3.94	3.95	3.88
13.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2.98	3.23	3.16	3.22
전 체	4.37	4.14	4.26	4.10

주 :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평균이 높게 나타나도록 역코딩.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4), 「8차 청년패널조사」.

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을수록 값이 높게 나타나도록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질문 문항과 청년층 경제활동상태별 각 문항의 평균값은 <표 6>과 같다.

13번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취업자의 자아존중감이 미취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는데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취업자 중에서도 육아 혹은 가사로 인한 미취업자는 실업자나 쉬었음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몇몇 문항에서는 취업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실업자와 쉬었음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종합적으

로 보면 자아존중감은 취업자, 육아·가사, 실업자와 쉬었음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Ⅲ.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선택요인

청년층을 성별로 구분하여 취업 혹은 미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과 취업 혹은 실업(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포함)⁵⁾을 선택할 요인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는데 주요했던 변인을 모형에 포함시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⁶⁾

남자와 여자 모두 고학력일수록 미취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와 실업자만을 놓고 보더라도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자일수록 각종 고시 준비, 전문자격증 취득 준비, 대학원 진학 등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미취업이나 실업상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기혼 여부는 남성 취업 확률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여성에게는 미취업이나 실업상태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우 우리 사회의 특성상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육아와 가사 같은 미취업상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취업상태보다 실업상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기혼여성이 경력이 단절된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업자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짐작된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취업보다는 취업상태에 놓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제곱 변수가 양(+)의 부호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취업 혹은 실업확률이 낮아지기는 하나 감소폭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소득은 남녀 모두에게서 미취업과 실업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가계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직업탐색기간이 길어져 취업보다는 미취업상태의 취업준비나 진학준비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계의 소득이 낮으면 경제적 여건상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가계경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직업훈련 경험은 미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5)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6) 청년 가구특성에서 살펴본 가구주, 생활비 부담,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의미하는 켄거루족 여부는 경제활동상태를 결정하는 주요인일 수 있지만 역의 인과관계도 성립한다. 따라서 김안국(2003)과 달리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가구소득(취업자는 본인소득 제외)과 아버지의 학력만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표 7〉 청년층 미취업 및 실업 선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별	변 수	미취업		실업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남자	학력더미(전문대졸)	0.256	0.189	0.836 ***	0.247
	학력더미(대졸 이상)	0.592 ***	0.191	1.091 ***	0.253
	기혼	-1.356 ***	0.309	-1.132 ***	0.354
	연령(만)	-0.710 **	0.294	-0.243	0.392
	연령 제곱	0.009 *	0.005	0.001	0.007
	대도시	0.421 **	0.184	0.277	0.218
	아버지 학력(고졸)	0.044	0.190	0.234	0.252
	아버지 학력(전문대졸 이상)	0.046	0.216	0.389	0.275
	가구소득	0.210 ***	0.038	0.404 ***	0.100
	직업훈련 유경험	0.115	0.203	0.299	0.231
	일자리 유경험	1.038 ***	0.151	0.955 ***	0.181
	시험준비 유경험	0.685 ***	0.154	0.876 ***	0.182
	자격증 취득	-0.430 ***	0.138	-0.374 **	0.167
	자아존중감	-0.078 ***	0.010	-0.081 ***	0.012
	상수항	13.648 ***	4.129	6.303	5.480
	표본수	2,419		2,297	
여자	학력더미(전문대졸)	0.265 ***	0.122	0.221	0.247
	학력더미(대졸 이상)	0.068 ***	0.126	0.960 ***	0.247
	기혼	1.784 ***	0.119	1.057 ***	0.333
	연령(만)	-0.942 ***	0.166	-1.020 ***	0.302
	연령 제곱	0.015 ***	0.003	0.016 ***	0.005
	대도시	-0.124	0.111	0.130	0.192
	아버지 학력(고졸)	0.204 ***	0.118	-0.154	0.226
	아버지 학력(전문대졸 이상)	0.182 ***	0.143	0.004	0.243
	가구소득	0.442 ***	0.213	0.810 ***	0.372
	직업훈련 유경험	0.111	0.126	0.369	0.190
	일자리 유경험	1.316 ***	0.104	0.684 ***	0.153
	시험준비 유경험	0.017 ***	0.100	0.446 ***	0.148
	자격증 취득	-0.236 ***	0.091	-0.211 ***	0.144
	자아존중감	-0.056 ***	0.007	-0.061 ***	0.010
	상수항	14.517 ***	2.379	15.981 ***	4.107
	표본수	3,169		2,357	

주: *는 0.1, **는 0.05, ***는 0.01의 유의수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4), 「8차 청년패널조사」.

녀 모두에게서 자격증 취득은 미취업 확률과 실업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험준비 여부는 미취업과 실업선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고시나 공사·공단 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는 혹은 준비했던 경험에 있는 청년층은 높은 경쟁률과 긴 수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아 미취업 혹은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경험은 남녀 모두의 미취업과 실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력직에 대한 노동수요가 높은 것과는 반대로 일자리 경험이 취업확률을 낮추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병희(2001)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뿐 아니라 일자리와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며 불안정한 일자리의 획득이 경력형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매우 불안정한 형태이며 이러한 경력의 누적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밝혔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결과는 노동수요측 입장에서 비정규직과 같이 불안정한 일자리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수 있고 공급측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일자리 경험이 비슷한 형태의 일자리로의 청년층 노동공급에 제한을 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실업자 혹은 미취업자는 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은 남녀 모두에게서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심리학이나 교육학 등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며, 인지적 능력도 우수하고,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효과적인 정서 조절기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성향이 청년기 노동시장 진입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V. 결 론

이 글에서는 최근 청년층 경제활동상태별 그 실태가 어떠한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관하여 탐색해 보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8차 청년패널조사(2014)를 통해 살펴본 결과, 고학력 청년층일수록 졸업 이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보다는 미취업이나 실업상태를 선택하여 직업탐색을 통해 직업경력의 출발점을 뒤로 더 늦출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대졸 청년층의 유휴인력화 문제가 고졸이나 전문대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최근의 실태를 잘 설명하고 있다. 다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결혼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탈퇴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기혼여성의 대부분이 육아와 가사로 인하여 미취업상태에 놓여있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서양 국가와 달리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캥거루족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우리 사회는 주거적 의존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캥거루족 특성은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며 취업에 비해 미취업과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에게서 캥거루족 특성이 보다 잘 관찰되었다. 한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결과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취업과 실업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은 그렇지 못한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동안 인적자본에 투자하여 미래임금을 상승시킬 유인이 높을 수 있음을 짐작케 했다.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은 취업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 경험일 자리의 대부분이 정규직과 같은 안정된 일자리나 고임금과 복지혜택이 좋은 일자리 경험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같이 불안정한 일자리거나 저임금, 학력이나 적성과의 미스매치 등의 일자리 경험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경력형성을 통한 취업으로의 선순환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층은 질이 낮은 일자리를 다시 선택하기보다는 인적자본 투자를 선택하거나 취업을 포기함으로써 미취업상태를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의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은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감이나 긍정적 태도,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등 인간의 심리적이고 정서적 요인이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층의 취업과 실업, 비경제활동에 대한 선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과제이다. 청년층은 학교를 마치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혹은 미취업상태로 머물지에 대한 선택은 향후 30년간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청년층이 고학력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 선택은 보다 나은 일자리에 대한 선호로 당연한 과정일 수 있으나 최근 우리 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청년층의 직업탐색 기간을 늘리고 취업포기자를 양산하여 부모에게 의탁하여 살아가는 청년층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직업훈련의 내실을 기하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는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KLI**

[참고문헌]

- 김안국(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분석」, 『노동경제논집』 26(1), pp.23~52.
- 안주엽·홍서연(2003),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5(1), pp.47~74.
- 오호영·나영선·이수경·류지영(2015), 「청년고용 이슈분석과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희(2001), 「청년 실업과 경력 형성」, 『산업관계연구』 11(2), pp.185~209.
- Salmela-Aro, K & Numi, J.(2007), “Self-esteem during university studies predicts career characteristics 10 years late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pp.1~12.

〈부표 1〉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변수의 정의 및 평균값

		변수정의	미취업 평균	실업 평균
종속변수		미취업=1 취업=0 실업=1 취업=0	0.246	0.097
인적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0.435	0.495
	최종학력	전문대졸=1 그 외=0	0.294	0.290
		대졸 이상=1 그 외=0	0.484	0.508
	결혼 여부	기혼=1 미혼=0	0.324	0.254
	연령		29.262	28.955
	연령 제곱		873.796	855.464
가구특성	거주지역	1=수도권 및 광역시 0=시도	0.814	0.818
	아버지 학력	고졸=1 그 외=0	0.543	0.539
		전문대졸 이상=1 그 외=0	0.248	0.262
노동시장 경험과 취업준비	가구소득		2,805	2,605
	일자리 경험	있다=1 없다=0	0.140	0.143
	직업훈련 경험	있다=1 없다=0	0.555	0.496
	시험준비	있다=1 없다=0	0.304	0.319
자아존중감	자격증 소지 여부	있다=1 없다=0	0.578	0.584
	각 표본의 총합		56.216	56.51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4), 「8차 청년패널조사」.